



대학주보



국제캠 정문 맞은편 대로변의 2층 건물은 반년 넘게 공실이다. 학생들이 자주 찾던 ‘부대통령’과 ‘탐앤탐스’가 자리했던 건물이다.

(사진=하시언 기자)

국제캠 정문 건너편 상점 줄폐업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학생·자영업자 ‘한숨’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국제】 “이젠 못 버티겠어요. 주
인한테 가게 내놓는다고 말해 놓
은 상태예요.” 국제캠 정문건너편
(정건) 뒷쪽 골목에서 ‘경돈가스’를
운영하는 최미정 사장은 깊은 한숨
과 함께 말했다. 최근 들어 매출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건’, 국제캠 정문 맞은편을 가
리키는 학생들의 용어다. 정건은
국제캠 학생이 찾는 주요 상권이
다. 다양한 밥집과 술집, 카페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몇 해 전부
터 정건 상권은 싸늘하기만 하다.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리고, 학
생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
던 식당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한때 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던
음식점과 카페도 예외는 아니었

다. ‘부대통령’과 ‘탐앤탐스’가 자리
했던 대로변 2층 건물은 반년 넘게
공실이다. 부대통령은 저렴한 가
격으로 학생들이 즐겨 찾던 밥집
이었다. 정의진(환경조경디자인학
2020) 씨는 “부대통령은 저렴한 가
격에 맛도 준수해 자주 찾았던 음
식점”이라며 “학기 중 점심시간에
가면 항상 대기할 정도로 사람
이 많았다”고 말했다.

바로 옆 카페 탐앤탐스 역시 시
험 기간마다 새벽까지 문을 열어
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으로 붐비
곤 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문을 닫
았다. 대로변 뒷골목 상황은 더 심
각했다. 영일로6번길과 매영로 일
대에는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여
놓은 가게들이 여럿 보였으며 임
대 현수막이 붙은 음식점이 곳곳
에 있었다. 특히 매영로 415번길은
50m 남짓한 거리에 연속해서 세
개의 상가가 공실 상태다.

이유진(중국어학 2024) 씨는 “점

심시간에 영통역 근처까지 가기에
는 시간이 빠듯해 정건이나 마을에
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데, 종종
밥을 먹던 곳이 하나둘씩 사라지니
이제는 어디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
는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영통3동 상권활성화지수 10등급
평균영업기간 ↓ 평균폐업기간 ↑

정건의 행정 구역은 영통3동이
다. 경기도 상권정책지원 사이트
에 따르면 영통3동의 지난 6월 상
권활성화지수는 10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상권화활
성화지수는 매출, 인프라, 인구, 금
융 지수를 합산한 결과로, 해당 지
역 상권의 침체 정도를 반영한다.

영통3동은 낮은 평균 영업 기간
과 긴 폐업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영통3동 음식점 평균 영업 기간은
3년으로, 경기도 평균인 3.2년보다
낮으며 전년 동기 대비 0.1년 감소

했다. 평균 폐업기간 역시 60.4개
월을 기록해 수원시 평균인 58.4개
월보다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폐업이 이뤄지고, 폐
업 후에도 오랜 기간 공실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매출 역시 감소 추세다. 상
권정보 사이트 오픈업에 따르면
영통3동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약
19%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
통3동의 평균 3개월 점포당 매출
액은 약 5,300만 원으로, 경기도 점
포당 매출액 8,200만 원에 비해 낮
다. 또한, 전년 동기 5,600만 원 대
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심각”
폐업 예고도 속출

정건 상권인 덕영대로, 영일로6
번길, 매영로 일대의 음식점 사장
을 직접 만나 상황을 들어봤다.

3면에 계속 →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 19일 열려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평화의전당과
선승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서울캠
2,161명, 국제캠 1,799명, 총 3,960
명의 졸업자가 학사 학위를 받는다.
함께 진행되는 석·박사 학위수여식
에서는 석사 총 1,875명, 박사 총
228명이 학위를 받는다.

단과대별로는 문과대 167명, 정
경대 475명, 경영대 333명, 호텔관
광대 254명, 이과대 222명, 생활과
학대 106명, 의과대 6명, 한의과대
110명, 치과대 44명, 약학대 99명,
간호과학대 138명, 음악대 81명, 미
술대 57명, 무용학부 40명, 자율전
공학부 29명, 공과대 492명, 전자정
보대 165명, 소프트웨어융합대 138
명, 응용과학대 113명, 생명과학대
117명, 국제대 85명, 외국어대 177
명, 예술·디자인대 330명, 체육대
181명, 융합 1명이 졸업한다.

매년 우수 졸업생에 수여하는 총
장상은 서울캠 14명, 국제캠 9명이
받게 됐다. 이 외에도 서울캠 11명,
국제캠 9명이 학장상을 받고, 우등
상은 서울캠 57명, 국제캠 43명이
받을 예정이다.

학위증은 19일부터 각 단과대 행
정실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배부한
다. 서울캠 졸업가운은 네오르네상
스관 1층 농구장에서, 국제캠은 각
단과대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서울캠	
학위증	각 단과대
졸업가운	네오르네상스관 1층 농구장
스톨	학생회관 2층 205호
포토존	본관 분수대 앞
국제캠	
학위증	각 단과대
졸업가운	각 단과대
스톨	학생회관 세미나실 304호
포토존	중앙도서관 앞, 선승관 내부